

調査研究, 情報交換과 弘報活動의 一環으로 專門誌인 漁港誌가 지 季刊으로 發刊할 計劃이라고 하니 이제까지 疏外당해 왔던 南海岸 淺海海藻養殖漁民들로서는 그에대한 期待가 자못 클 수 밖에 없다.

每年 颱風이 來襲하면 反復되는 群小漁港破損과 그에따른 漁船被害는 그렇지 않아도 모든 水産施策이 企業漁民 爲主로 展開되는것 같아 恒常 疏外感을 느끼고 있는 우리 南海岸 淺海海藻養殖漁民들에게는 甚한 갈등을 갖게 하는 要因이 되고 있다.

비록 群小 規模의 漁港이 漁港法과 無關하고 島嶼開發促進法施行과 關聯하여 이제까지 水産廳所管으로 推進해온 群小規模 漁港建設事業이 內務部로 移管되었

다 할지라도 今般 本格的인 業務를 開始할 漁港協會는 漁港法上의 指定漁港에만 關心을 두지말고 今後 그늘진 곳을 解消하고 疏外當한 階層의 被害意識을 拂拭시키는 데에도 力點을 두기 바란다.

漁港은 우리 漁村의 核心的인 生産基盤施設이다. 颱風만 來襲했다하면 常習의으로 被害를 입고 있는 要因을 根本的으로 除去할 수 있도록 堅實한 施工 方法, 施設 資材의 開發 普及과 合理的인 群小漁港 構築事業, 推進方案等을 提示하여 投資의 效率性과 地域漁民의 努力負擔이 調和를 이루어 淺海海藻養殖漁民들의 疏外意識과 自然災害로부터 被害를 極小化시킬 수 있는 一翼을 擔當해 주기 바란다.

수산업의 근본인 넓은 어장과 풍족한 수산자원을 바탕으로 그에 못지않은 신어항축조 및 개발 사업, 신조선증대와 어로장비개발, 원양어업의 해외진출, 증양사업 등 실로 나열하기 어려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는 수산 당국 관계자들에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더 고마움을 느끼며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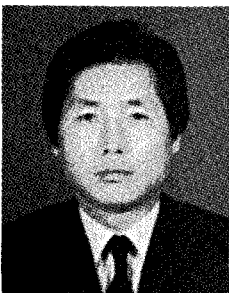
제가 어항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제가 그동안 종사해온 어항축조사업에 대한 조그마한 경험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바다와 가까운 곳에서 출생하여 어렸을때부터 바다와 같이 꿈을 키워왔고 그리하여 어항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70년 4월 건설회사를 설립, 사장이하 모든 종사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어항시설사업에 앞장 서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2,000년대의 경제대국에 발맞추어 우리 어항사업에 많은 기회와 여건이 주어 지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어항사업은 수산업당국에서 이미 계획된 사업을 조기에 완공함으로써 어업을 완전 자동화하고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둘째, 어항시설사업에 따른 시설물이 해마다 우리 나라를 경유하는 하절기 태풍으로 흔히 유실되고 어선이 파손되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막대한 재산 손실을 가져오므로 이에따른 대응책이 강구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

計劃사업早期에 完工 既存施設 더 補強토록



배 정 문

〈합자회사 영생토건사·전무〉

우리 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태고때부터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이 많은 터라 수산업을 영위해 오

면서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근세기의 어느 국가보다 변천과정이 다양하다고 하겠다.